

직물용어 해설-12

* 팜비치(Palm Beach)

모헤어, 모, 레이온,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아크릴 등을 사용하며 팜피라고도 부른다. 원래 경위사에 모헤어 연사를 사용하였으나 현재의 것은 경위 모두 소모사를 사용한 것이 많다. 평직이 많으나 이지직도 있다. 제작 후 모소, 염출을 하여 클리어 마무리로 한다. 촉감은 약간 사각사각하고 포털에 가까우나 포털 보다는 약간 부드럽다. 무지염이 많으나 사염한 뿔탄지도 있다. 미국의 굳을 샌포드사의 등록상표이다.

* 평우이중(Plain Habutai)

면,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경위사에 무연의 생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한 직물로써 촉감이 부드럽고 온아한 광택이 있다. 옛날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품종이었다. 특히 30g미만의 밀도가 적은 우이중은 미국, 프랑스의 기술로는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특산품으로써 수출 우이중의 대부분을 점하여 왔다. 일본 내수에서는 45g 이상의 두껍고 조밀한 것이 사용된다. 경사는 1을 호부하고 위사는 습한 위사로 하여 제작한다. 제작 후 정련한다. 표백하여 흰색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무지염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서는 정련하지 않은 생지 그대로 사용한다. 큐프라,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장섬유로써 제작한 것도 있다.

(주) 제작한 채로 정련하지 않는 것을 인견, 스프 직물로써는 생기(生機, greige), 면직물로써는 생지(生地, grey, gray)라고 하는데 견직물에서는 생(生, raw)이라고 한다. 견직물에서 정련만으로 표백하지 않은 것을 내추럴이라고 한다.

용도는 손수건, neckchief(18~23g 정도), 절연 재료(11~15g 정도의 생), 등사판용(영성한 것, 생), 드레스, 블라우스, 키모노(이들은 조밀한 것) 등이 있다.

* 펠트(Felt)

모, 면, 레이온,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양모가 가지고 있는 연합성(온탄 또는 비누 액에 침지하여 마찰하면 서로 얽혀지는 성질)과 가소성(양모를 가

열하여 형태를 부여하면 식어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증기와 열과 압력을 가하여 산산히 흐트러진 양모의 덩어리를 직물로 한 것이다. 방모의 소면기와 같은 기계로써 얇은 랩으로 하여 이것을 여러 매 겹쳐서 일정한 두께로 한다. 소요되는 제품의 두께에 따라서 필요한 수만큼 더욱 겹쳐 증기를 계속 가하여 가열 철판에 끼워서 강압을 가하여 계속 비빈다. 다음에 절구에 넣어서 비누 액을 계속 부어 밀어 올린다. 이러한 공정 중에서 생긴 주름은 열 철판으로 계속 밀어 올려 건조하고 또 전모, 호부, 광택 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낙타, 양골라 토끼털, 산양모, 낙모, 재생 양모 등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면 섬유나 레이온 스테이플 특히 권축 스프가 혼용되는 것이 많다. 두께는 1/32~3inch 정도이고 무게는 85g/yd² 내지 29.48kg/yd²로 종류가 많다. 보온력이 높고 충격을 완화하는 성질이라던가 음향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흡습성도 보수력도 크다. 신축성은 거의 없으나 압축 탄성이 풍부하다. 일정한 형태로 재단하기 쉽고 그러한 형태는 무너지지 않는다. 구멍이 생겼을 때 수선은 곤란하다. 염색은 원모 염색이 보통이다.

펠트 클로스(Felt Cloth)는 압용 펠트가 아니고 기모와 축융을 시행한 제직 펠트로서 일종의 방모 직물이다. 날염기나 칼렌더 등에 사용한다. 모자용으로 사용하는 모체 펠트는 형으로 볼어넣어 만든 것으로써 분무 펠트라고도 한다. 펠트(Felt)는 여과한다(Filt)고 하는 의미의 앵글로 색슨 어로부터 유래한다. 용도는 깃발, 덮개, 항공사의 귀덮개, 방음용 직물, 모자 본체, 슬리퍼, 여과포, 철모의 덧댐천, 와샤, 깔개, 방한화, 수예용 직물 등으로 다양하다.

* 포 드 시그뉴(Peau de cygnet)

광택이 좋고 중량감이 있는 견직물로써 요철 효과를 낸 직물이다. 조직은 보통 8장 사자조직으로 하고 크레이프사를 사용하여 사염을 한다. 포 드 시그뉴는 프랑스어의 살결이라는 뜻이다.

* 포럴(Poral)

모헤어, 모, 레이온, 견,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하는데 모 포럴은 경위사 모두에 강연(30TPI 정도)의 3꼬임을 제직사로 사용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위사에 쌍사를 사용한 것이라던가 경사에 쌍사, 위사에 단사를 사용한 것도 있다. 포털 제직사의 상연은 보통 우연(S연)으로 한다. 즉, 소모사의 꼬임 방향인 좌연과의 반대의 방향으로 상연을 한다. 단사의 꼬임과 반대 방향의 상연을 주는 것을 역연이라고 한다. 역연으로 하면 체결된 강한 느낌의 연사를 만들 수 있다. 포털 중에는 경사에 순연과 역연을 한 올씩 교호로 배열하여 위사에 순연을 타입한 것이 있다. 이것을 순역 포털이라고 한다. 또 이색의 단사를 꼬아 합한 3꼬임을 제직사로 사용한 것을 삼목 포털이라고 한다. 이 제품은 모헤어 소모사를 경위사로 사용한다. 모헤어는 광택이 풍부하고 조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직 후의 포털도 짝짝하고 사각사각하고 청량하여 특유한 안정된 광택을 갖는다. 꼬임을 많이 준 까실까실한 포털사(소모사로 만든 포털 제직용 장식사로써 30TPI의 강연사)로 제직한 직물로써 기공성이 풍부하고 청량감이 있는 소재로써 경위사 포털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변화 조직으로 제직한 밀도가 성긴 직물이다. 소모, 견으로 제직한 것도 강연사를 사용하고 이러한 제품인 모헤어를 사용한 포털의 맛에 근사하여 촉감을 짝짝하게 마무리한다. 무지 또는 멜란지의 것이 많고 줄무늬가 들어간 것도 있다. 모헤어는 소아시아 지방이 우너산지인 양고라 산양으로부터 얻는다. 남아프리카, 터키, 미국 서부 지방이 주산지이다.

* Poral사 : 식연사의 일종으로 3올의 실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제1의 실에 강연을 주고 제2의 실을 합하여 앞의 꼬임 방향과 반대로 중간 연을 주어 가연한 다음 제3의 실을 합하여 상연을 중간 연의 방향과 반대의 꼬임을 주어 만드는 실이다. Poral은 모공(毛孔) 또는 기공(氣孔, porous)이라는 의미의 pore의 형용사로써 기공이 있는 직물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직물의 조직과 외관의 특징으로부터 이름지어진 것일 것이다. 주로 하복지로 사용한다.

(주) 광택이 풍부한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포털과 마찬가지로 여름 복지에 사용되는 모직물을 다음에 나타낸다.(트로피컬, 팜비치, 평우이중)

* 포플린(Poplin)

면, 모,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비닐론,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의 섬유

를 사용하는 평직의 대표적인 직물이다. 위사 방향으로 달리는 가는 이랑이 있어 거백(璩?)과 같은 외관을 가진 촉감이 부드러운 직물이다. 원래 면모 교직물로써 경사에 가는 생사를 위사에 굵은 울의 소모사를 사용하고 경사의 밀도를 치밀하게 하여 평직으로 제직하고 횡단을 나타낸 고가의 직물이었다. 현재는 경위사에 면사를 사용한 면 포플린이 많다. 비닐론, 폴리에스터 혼방인 것도 있다. 모두 경위사에 무연사를 사용하고 경사를 치밀하게 위사에 굵은 울의 실을 타입 하여 횡무를 나타내고 있다. 면 포플린은 경사에 40's~80's의 쌍사를 이용하고, 위사에는 10's~20's의 단사, 20's~30's 쌍사 등 경사보다도 굵은 단사라던가 쌍사를 사용하여 경사의 밀도를 위사의 2~3배로 하여 평직으로 한다. 횡 방향의 굵은 이랑이 나타난다. 요즘은 이러한 직물을 텃사(tussore)라고 부르는 것이 많다. 최근에는 경위사 모두에 30's~60's의 고급 면사를 사용한 평직물의 약칭으로 정착(브로드), 양복감으로는 포플린이지만 셔츠 감으로는 브로드라고 한다. 경위사에 모두 단사를 사용한 것을 단사 포플린이라고 한다. 표백하여 백색으로 사용한 평직물의 약칭으로 정착(브로드), 양복감으로는 포플린이지만 셔츠 감으로는 브로드라고 한다. 경위사에 모두 단사를 사용한 것을 단사 포플린이라고 한다. 표백하여 백색으로 사용하는 외에 무지염이라던가 날염하여 사용한다. 사염으로 줄무늬라던가 격자를 나타낸 것도 있다. 프랑스의 명칭인 popeline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포플린은 프랑스의 아비뇽(Avignon)이 원산지였는데 이 지방이 로마 법황(pope)의 영지였기 때문에 교황에게 헌상하는 직물이라는 뜻으로 popeline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당시의 포플린은 경사에 생사, 위사에 소모사를 사용한 고급품으로써 법의라던가 성단이나 교회 내부의 장식 의례용의 드레이퍼리로 사용되었다. 여성용 의류, 코트, 슈트, 가운, 드레스, 운동복, 유니폼, 창가리개 등으로 사용한다.

견(작잠사, 생사), 면,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원래 중국의 산둥 지방에서 토산 야잠견으로부터 수방한 실로써 제직한 수직의 거친 직물이다. 견 폰지는 견주라고도 한다. 경위사를 작잠사로 제직한다. 갈색이라던가 청색 또는 황갈색의 무지물이 많다. 실의 곳곳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직물면에도 이것이 나타나서 폰지 특유의 외관을 나타낸다. 촉감은 까실까실하여 차갑다. 매듭이 없고 치

밀하며 표백이 충분하여 색상이 크림으로 되어 온화한 광택이 있는 것이 상품이다. ①인도 각지에서 사염 견사를 경위사에 사용한 고급 직물을 평직으로 하여 150올×150올/2.54cm 정도로 제작한 것을 말할 때도 있다. ②영국에서는 랑카샤 폰지라고 하며 면사를 머서화 가공한 후 이를 제작하여 직물로 염색한 다음 슈라이너 가공을 행한 것이 있다. 경사 80's, 위사 120's, 밀도 98올×104올/2.54cm 정도이다. ③영국의 견직물이며 생사로 제작한 다음 정련한다. 경사 26d, 위사 90d, 밀도 80올×80올/2.54cm 정도의 직물이다. ④보통[폰지]라고 불리는 면직물은 경사 80's, 위사 120's, 밀도 98올×104올/2.54cm 정도의 것이며 미국에서는 경량~중급의 평직물이다. 이는 정소면사를 사용하여 제작후 슈라이너 가공 또는 머서화 가공을 한다. 직물은 견 폰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용도는 양복감, 파자마 등 다양하다. 중국 및 일본의 작잠사는 야잠의 일종인 시나·탓샤의 누에로부터 뽑은 것이다. 가잠의 누에로부터 뽑은 생사에 비하여 광택이 천하고 표백이 곤란하지만 섬도가 굵고 강력이 큰 점 외에 매년 2~8ghlo의 누에 수확이 있고 실외 사용 때문에 비용이 싸다는 등의 이점도 있다. 중국어으로써 자수직을 [판지]라고 부르는 데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한다. 다운웨어, 블라우스, 파자마, 커튼, 슬리브, 침장용, 안감 등으로 사용한다.

* 프랑스 능직

견,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모, 비닐론, 아크릴 등의 섬유로 통상 3올 이상의 긴 경사의 부출을 갖는 급사문의 경능 조직으로써 폭이 넓은 이랑을 제작하여 나타내고 이랑과 이랑 사이를 위능 조직 등으로써 제작한 변화 사문 조직이다. 급한 각도, 넓은 폭, 우능의 이랑선이 특징적이다. 투피스, 코트, 오버 등으로 사용한다.

* 플랫 크레이프(Flat Crepe)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로 경사에 무연사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좌연과 우연의 편연 강연사를 사용한다. 위사는 좌연을 2회, 이어서 우연을 2회로 좌우 2올씩 교호로 타입 한다. 위사의 꼬임수는 굵기에 따라서 다르나 견에서는 2,500~3,200T/M 정도, 인견에서는 1,800T/M 정도이다. 보통 단순하게 플

랫이라고 한다. 경사 밀도는 위사에 비하여 상당히 많고 통상 1.5~1.6배 정도 많다. 경의 플랫 크레이프에서는 경사의 섬도가 위사보다 약간 굵은 것이 많다. 이것은 직물로써는 적은 예이다. 위사의 꼬임이 약간 적은 것과 마무리의 관계 및 견에서는 무연인 경사의 쪽이 꼬임을 준 위사보다 다소 굵은 점 등이 다르며 곱슬 주름이 가늘고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인견의 플랫 크레이프에는 거의 곱슬 주름이 눈에 뜨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이처럼 표면이 비교적 크레이프 드 신과 같고 주름이 적으며 특히 레이온사를 사용한 것은 전혀 주름이 없는 수가 많다. 이처럼 표면이 비교적 플랫하게 보이므로 플랫 크레이프라고 이름 지워졌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봉사로 모양을 낸 자수(embroidered)도 있다. 플랫 크레이프의 명칭은 측면으로 하여서는 눈에 띄지 않고 표면이 비교적 평활(flat)하게 보인느 점으로부터 주어진 것 일 것이다. 용도는 드레스, 블라우스, 안감, 네글리제, 파자마, 내의 견신발, 가운 등에 사용한다.